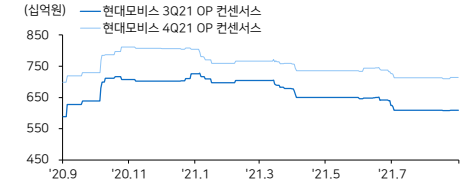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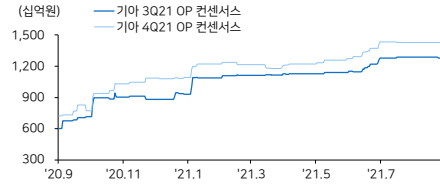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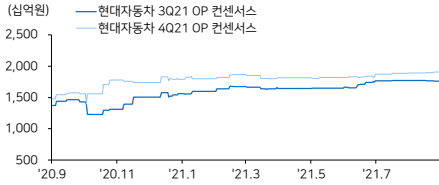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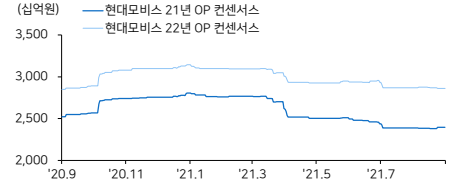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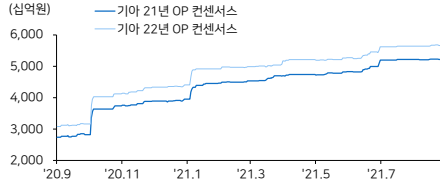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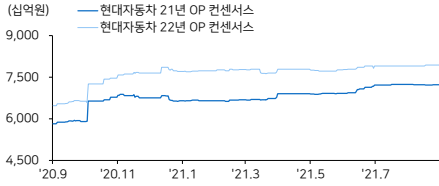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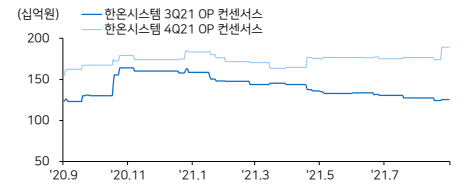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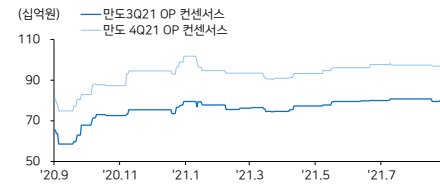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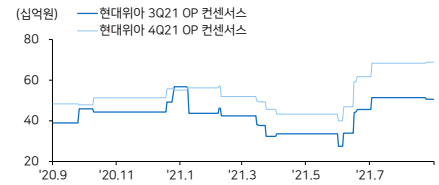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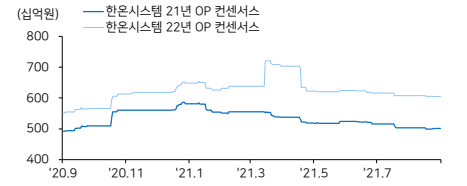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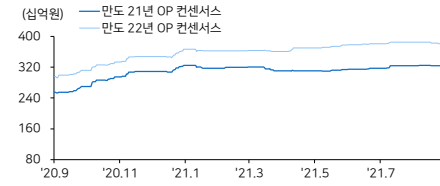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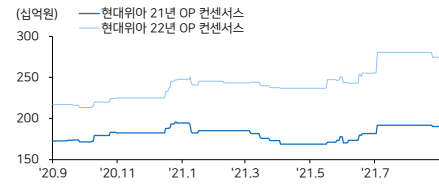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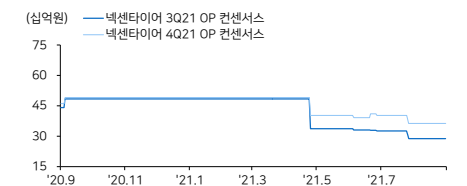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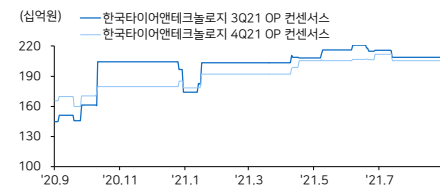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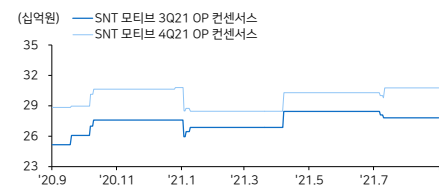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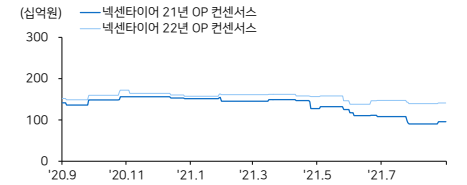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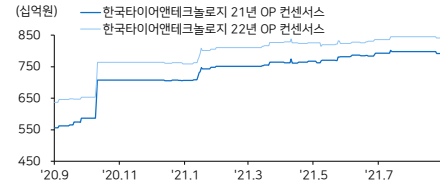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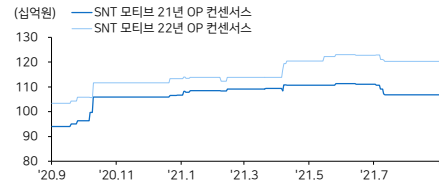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아반떼N·코나N 구동, 현대차 고성능차 진격 (디지털타임스)

현대차는 현재 구동서비스 브랜드 '현대셀렉션'을 운영 중이며, 다음달 중 아반떼 N과 코나 N의 구동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 현대차는 N 20~30대의 MZ세대를 핵심 수요층으로 보면서 다양한 마케팅으로 고성능 저변 확대를 계획. <https://bit.ly/3m3R10o>

중국 전력난 심상찮다...韓 기업들, 공장 자동 중단될까 '전전긍긍' (뉴스1)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가 전력 사용량을 제한받고 있으나, 현지 판매 감소로 이미 공장을 일부만 가동하고 있어 생산에 무리가 없는 상황. 상황변화 가능성에 자기관리시스템 점검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침. <https://bit.ly/3A2GVm1>

중국 전력난 '전기차 시장에도 악영향'...수요 감소 (뉴스1)

중국의 전력난 사태가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함. 지난주부터 중국 북동부 지린성과 남부 광둥성에서는 정전 사태로 일부 충전소들이 출퇴근 시간 운영을 중단함. <https://bit.ly/3C0Uatnw>

혼다, 내년 북미 시장 출시 모든 차량 '안드로이드' 탑재 (THE GURU)

혼다는 최근 구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신 모델에 안드로이드를 탑재, 통합하기로 함. 북미 시장 진출을 토대로 점차 글로벌 범위로 확장한다는 계획. <https://bit.ly/3D0K0mV>

현대차 '캐스퍼' 공식 출시...경차 부활 이끈다 (뉴스1)

현대자동차가 29일 캐스퍼 온라인 발표회 '캐스퍼 프리미어'를 열고 본격 판매를 시작함. 사전계약 열흘만인 지난 23일 기준 올해 생산목표(1만2,000대)를 훌쩍 뛰어넘는 약 2만5,000대가 예약되며 흥행몰이를 일으킨 바 있음. <https://bit.ly/3Y8xDI4>

현대차 펠리세이드 증산, 전주공장에 이관하나...30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노사가 오는 30일 고용안정위원회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펠리세이드 생산 확대와 전주공장 물량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 국회의원, 도의회까지 나서 물량배분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노사간 이견이 있는 상황. <https://bit.ly/2Y3Zlpx>

폭스바겐·포드 등 완성차 업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 불 붙었다 (한국경제)

도요타자동차와 폭스바겐 BMW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는 중.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적고,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여겨짐. <https://bit.ly/3KNN80e>

토요타, 자율주행차량용 운영체제 개발사 인수 (디지털투데이)

토요타의 우분트라이브 홀딩스가 자율주행차량용 운영체제를 만드는 스타트업 레노보 모터를 인수했다고 밝힘. 토요타는 지난 4월 리프트의 자율주행사업부 인수, 7월 Carmera 인수에 이어 자율주행차 개발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중. <https://bit.ly/3m8GzAh>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